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ESG 경영 워크숍 결 과 정 리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Changwon City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본관 지하 1층

T : 055-262-4275 F : 0303-0262-4275 E : greencw21@daum.net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ESG 경영 워크숍 결과정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 ESG(친환경 · 사회적 책임 경영 · 지배구조 개선) 경영활동 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1. 10. 13.(수) 14:00 / 창원대학교 22호관 104호
- 주 제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해
- 참석대상 : 30명(지속협 위원, 기업체 담당자 등)
- 주최주관 : 창원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대학교LINC+사업단
- 후 원 : 창원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 창원산업진흥원, (재)경남테크노파크

세부일정	발표자
■ ESG, CSR, SDGs에 대한 이해	문미경 창원대학교LINC+사업단 지역협업센터장
■ SK의 ESG 경영과 조직/구성원 내재화 방안	정창래 SK(주) C&C 매니저
■ 창원시 기업의 ESG 경영 사례발표 · 해성디에스(주) / 전민수 안전환경팀 팀장 · 한화디펜스(주) 창원1사업장 / 도병윤 환경안전팀 부장 · 현대위아(주) / 박상욱 안전환경팀 팀장 · 텐소코리아(주) / 우준석 지속가능경영TFT 사무국장 · NH농협 / 문정근 창원시청지점 지점장	

사례발표 주요내용

SK의 ESG 경영과 조직/구성원 내재화 방안 (정창래 매니저)

- (ESG 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G) 시 재무적 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인 사회(S)와 환경(E)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경영
- (ESG 글로벌 가이드 라인) 목표단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참고, 실행단계: ISO 26000 활용, 평가단계: MSCI, DJSI,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컨설팅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공개/보고: GRI Standards에 따라서 만든다.
- ESG의 최종 목적은 지속가능성을 달성해내기 위함이다.
- 사회적가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ESG Handbook’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SG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 ESG를 할 때 국내·외 8대 ESG 동향을 참고해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컨셉을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 (SK ESG 경영 특징) 1. 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하는지, 일반고객을 위해 하는지 Target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체계가 중요하다.  이사회/KPI의 역할 중요 3. 측정과 평가를 통해 성과의 입증 필요하다.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4. 차별화와 경쟁력 포인트가 필요하다.
- (조직 내재화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에 내재화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SK 조직 내재화**: 사회적 가치 측정(SVMS)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달 화폐가치로 계산(정량화)해 분기별로 발표한다. 또한 기업의 현 수준을 측정·진단하고 개선하면 좋을 점 등 데이터를 제공하는 ESG 진단 플랫폼을 구축했다. **구성원 내재화**: SV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으로 시작해 현재는 업무 속에서 SV 실천하려는 단계에 있다.

해성디에스 ESG 경영 사례 (전민수 안전환경팀 팀장)

- 환경을 중점적으로 ESG를 추진 중이며, ESG 등급은 2016~2020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 환경분야(E)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폐수 재이용을 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RE100이 화두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의 시작으로 태양광 설치(현재 400KW)를 했다.
- 사회분야(S)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 입장에서 ESG 경영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비용, 정보, 인력 등의 부족으로 한계를 느낀다. 향후 ESG 전담조직을 재정비,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K-RE100제도에 적극 참여 할 계획이다.

한화디펜스 창원1사업장 ESG 경영 사례 (도병윤 안전환경팀 부장)

- 사업장 환경 및 안전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담당자별 전문교육, 환경안전 이벤트 및 캠페인 진행, 화학물질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사고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 RE100에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5가지 저탄소 활동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ECO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마일리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구르미카/나르미카를 제작하고 매달 보급하는 재능기부 활동, 환경단체 정기 후원, 지역 하천 환경정화활동, 도랑품은 청정마을 1사1도랑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갖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예정이다.

현대위아 ESG 경영 사례 (박상욱 안전환경팀 팀장)

- 한국생산성본부를 파트너로 ESG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ESG 종합등급 A 평가를 받았다.
-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면서 친환경 부품을 개발하고,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투자, 글로벌 RE100 가입 선언, 1사 1하천, 생물다양성 보존활동, 마산만 살리기 활동, 초록학교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안전보건경영, 협력사 상생발전, CSR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 중이다.
- 거버넌스 분야는 전 회사 임직원들이 역여 있어 쉽지 않으나 윤리경영, 사내관리조직, 내부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ESG 평가 기관은 다양하나 평가 기준이 상이해 업무 추진에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앞으로 ESG 선도기업으로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ESG 지원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RE100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덴소코리아 ESG 경영 사례 (우춘석 지속가능경영TFT 사무국장)

- ESG 경영은 지속가능경영 추진 TFT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다. ESG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사내 인식 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해맑은 마산만 살리기 활동, 사내 채식 식단 도입, 공장 녹지화를 위한 그린팩토리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글로벌 제조업계 최초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했고, 현재 어떻게 달성할지 계획을 정리하고 있다.
-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 2016년부터 기업윤리사무국을 운영을 통해 전 사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H농협 ESG 경영 사례 (문정근 창원시청지점 지점장)

- 최근 금융기관에서도 ESG 관점의 투자 및 리스크 관리 등 경영전반에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 농협금융은 ESG 공감대를 형성 및 ESG 현황진단과 대응방향을 논의, 환경부와 녹색금융지주 간 녹색금융 MOU를 체결했다.
- 녹색금융·ESG투자 활성화, 친환경 금융그룹 도약을 목표로 ESG 요소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탈석탄금융 선언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및 기타의견

- (김영남 / (주)무학 상무보) ESG에서 거버넌스(G)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 ☞ (정창래 / SK(주) C&C 매니저) 거버넌스(G)는 어려운 것이 맞다. 의사결정을 할 때 ‘투명한 의사결정’에 포커싱 한다면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를 거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 활동에 사회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사회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것, 경영층과 구성원 간에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이것이 ESG 경영이고 해야 한다고 말해보는 것, 내재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ESG 경영 개념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해왔던 윤리경영 활동을 ESG 경영 카테고리에 묶는 것도 괜찮다.
- (문미경 / 창원대학교LINC+사업단 지역협업센터장) ESG를 하기 위해 재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업들이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창래 / SK(주) C&C 매니저) 발표들을 듣고 지표를 선정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 기관에서 평가를 안 받고 있는 회사도 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대한 실적 및 목표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사진

